

일본의 주요 면방 메이커가 보여주는

중점 소재 및 제품과 전략

◎ 후지보 홀딩스 - 면 100%의 고급 이너 ‘로모스’에 시즌 기능 실현

후지보 홀딩스(富士紡 holdings)는 섬유 차별화 상품 개발팀(纖維 差別化 商品 開發team)을 중심으로 면 100%를 잘 지키고 있는 고급 신사용 내의(高級 紳士用 內衣)인 ‘로모스’의 새로운 상품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

로모스는 방적에서부터 봉제까지 그룹(group)에서 일관 관리되고 있는 일본산 이너(日本産 inner)이다. 이제까지 연속 실켓 면사(連續 silket 綿絲)인 ‘렌실’로 만든 이너나 면 100%의 냉량감 내의(冷凉感 內衣)인 ‘로모스 아이스드 코튼’을 개발하여 판매하였으며 2009년 추동절에는 보온성이 좋은 ‘로모스 난(暖) 코튼’을 시험적으로 판매해 봤는데 좋은 평을 받았으므로 인터넷이나 직영점과 일부 백화점을 판로로 하여 본격적으로 판매하게 되는 2010년에는 2만 매(소매가격으로 1억 엔)를 판매할 계획이다.

‘난(暖) 코튼’은 보온성을 더 좋게 하기 위하여 생지는 두겹게 하지 않으면서 공기층을 두겹게 하는 발상으로 실은 물론이고 편성이나 가공 공정에서 정성을 들였다. 면100%로 얇고 가벼우면서도 따스하며 여러 번 세탁하여도 기능은 지속되고 있다.

면 100%이면서도 합섬과 맞먹는 차별화 상품은 경합이 별로 없으며, T-셔츠가 5,000 엔대로 싸지 않는 판매 가격인데도 면내의를 좋아하는 세대의 지지를 받고 있다.

◎ 신나이가이멘 - 이너의 중점 소재는 ‘시셀’과 ‘리오 실버’

신나이가이멘(新内外綿)은 이너(inner) 소재로서 주력으로 되어 있는 정제 셀룰로스(精製 cellulose) 텐셀(Tencel)과 신축성이 있는 polyurethane 실을 커버 얀(cover yarn) 없이 함께 짠 평편지(平編地 : plain stitch) 뿐만 아니라 리오셀(Lyocell)에 해조 분말(海藻 粉末)을 이겨 넣은 시셀(sea cell) 시리즈(series)를 확대하려고 힘을 쓰고 있다. 이 소재의 명분은 천연 섬유에 의한 환경(環境)과 해조를 이겨 넣은 건강(健康)이다.

시셀은 독일의 스마트 파이버(Smart fiber)사(社)가 개발한 섬유로 텐셀이나 면과 혼방함으로써 해조 미네랄(海藻 mineral)이 잘 작용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신나이가이멘이 이 원면의 독점 수입권(獨占 輸入權)을 갖고 있다. 면이나 텐셀에 레귤러 시셀(regular sea cell)을 혼방한 ‘시셀 퓨어’, 레귤러 시셀과 은이온 배합(銀 ion 配合) 시셀을 혼방한 ‘시셀 액티브(active)’ 외에, 은이온 배합 시셀 혼방의 ‘리오 실버(Lyo Silver)’의 3개 타입을 갖추고 있다. 특히 리오 실버는 뿌리 깊은 니즈가 있는 항균 방취 기능(抗菌 防臭 機能)을 크게 공개하고 있다.

이미 구미에서는 이너(inner)나 양말, 침장 등으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어 일본 국내에서의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신나이가이멘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특히 실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이 회사의 강점이다. 용도를 고르지 않고 제안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2010년도 추동절 소재로서는 뿌리 깊은 인기가 있는 텐셀 캐시미어(cashmere) 혼방 원형 평편지(円型 平編地)나 텐셀 아크릴 혼방의 보온 소재인 ‘셀 워름(cel warm)’이 중심이 된다. 또한 텐셀 울 혼방(Tencel wool 混방)도 개발 중이다. 원료나 방적 기술을 응용하여 피부에 닿아도 따끔따끔한 느낌이 없는 촉감을 목표로 울 내의라는 분야를 개척하고 있다.

◎ 다이이치보 - 셀룰로스 100%의 발열 보온 소재로 PB 대응

다이이치 방적은 2010년도 추동절의 이너 소재로서 최근에 개발한 발열 보온 소재(發熱 保溫 素材)인 ‘따스한 실’과 ‘리얼 핫(Real Hot)’을 핵심으로 양관점 등에 ‘프라이빗 브랜드(private brand : PB)’로 강하게 대응함으로써 판매량 및 판매액이 모두 2008년 동기 실적을 웃돌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스한 실은 면·편평 레이온(編平 rayon)·큐프라(Cupra) 혼방의 특수 약연사(特殊 弱撚絲)를 사용한 원형 평편지(円型 平編地)이다. 셀룰로스의 습윤시 발열 성능을 실(yarn) 속의 공기층에서 보온함으로써 발열 보온 기능을 만들어낸 셀룰로스 섬유 100%의 기능 소재이다.

이전에는 발열 보온 소재라고 하면 아크릴(acryl)을 중심으로 합섬을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아무래도 합섬 메이커와의 경쟁에서 지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이너 시장에서 합섬을 사용한 보온 소재는 포화 상태였으므로 면을 중심으로 하여 셀룰로스 섬유

100%라는 새로운 명분으로 제안하고 있다.

특히 힘을 써야 하는 것이 양판점(量販店) 등의 PB(private brand) 제품의 OEM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이 회사는 중국에 편성(編成), 봉제(縫製) 협력 공장이 있어서 일본으로부터 원사를 갖고 가서 중국에서 편성하고 봉제하여 제품을 납품할 수 있다. 이 기능을 살려 양판점 등의 PB의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 의뢰자의 brand명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위탁 생산 방식) 수주(受注)를 적극적으로 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합섬을 사용하는 니즈에 대하여는 리얼 핫(Real Hot)을 제안하고 있다. 심(芯 : core)에 흡수성 아크릴(吸收性 acryl), 표면(表面 : sheath)에 마이크로 아크릴(micro-acryl)과 편평 레이온(編平 rayon)을 사용한 코어 얀(core yarn)을 원사로 사용한 원형 편평지(円型 編平地)이다. 셀룰로스의 발열을 아크릴로 보온하면서 흡수 아크릴의 효과로 수분을 간직함으로써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억누르고 있다. 이것도 제품으로 납품함으로써 OEM의 수주를 크게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